

저는 '이민 수용에 찬성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에세이를 써보려고 합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 난민 이슈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세계화에 따라 이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증가했습니다. 또한 이민자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한 적절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도 알고 싶어졌습니다. 요즘 세계화가 이루어진 이 시대에 나의 일, 우리나라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이슈들을 자신도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난민 이슈와 이민에 대한 문제로 국적 불문하고 세계화가 되어있는 이 시대에서 많은 문제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민'이라는 것은 자신의 원래의 삶의 터전을 떠나 새롭고 어색한 환경에서의 생활로 옮겨가는 것이기에 상당히 신중하고 깊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난민의 증가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이민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기에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민 수용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입장에 대한 근거를 뒷받침할 조항이 있습니다. 조항1: 이민 수용국이 이민자를 받아들인다. 조항2: 이민자들은 반대급부로 최소한 수용국의 핵심 규범과 가치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모국의 전통 규범과 가치 일부를 포기하는 것도 감수한다. 조항3: 이민자들이 충분히 동화되면, 점차 수용국의 평등하고 완전한 일원이 된다. '그들'은 '우리'가 된다. 이 세 가지 조항을 둘러싸고 각 조항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별개의 논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수용국은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호의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민자를 받아들일지에 여부나, 어떤 조건에서 받아들일지에 관한 결정은 전적으로 수용국에 달려있습니다. 모든 인간 집단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외부 침공에 맞서 방어하는 것입니다. 국가라면 얼마든지 이민 정책을 마음대로 펼 수 있고, 이민자를 선별할 수 있습니다. 이민은 특권이며 수용은 특전입니다. 두번째로 이민자들에게 완전한 평등을 제공하는 이상 완전한 동화를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이민자들이 영국이나 독일, 스웨덴 문화의 어떤 특이함을 문제삼는다면 다른 곳을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관용을 중시하는 유럽은 관용을 발휘하지 않는 사람들의 대량 입국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수용국은 문화가 훼손될 위험을 무릅쓰고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기에 문화마저 파괴할 이유는 없습니다. 수용국은 문화가 훼손될 위험을 무릅쓰고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기에 문화마저 파괴할 이유가 없습니다. 관용과 자유가 유럽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은 동의하지만, 많은 이민자 집단이 불관용, 여성혐오, 동성애 혐오, 반유대주의를 보입니

다. 관용적인 사회는 소규모의 비자유주의 소수자들은 관리할 수 있어도, 그런 극단주의자들의 수가 한도를 넘어서면 사회 전반의 성격이 바뀌고 맙니다. 만약 중동에서 밀려드는 이민자를 너무 많이 허용하게 되면 유럽은 중동처럼 바뀌고 말 것입니다. 또한 너무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수용국의 온전한 문화를 흐트러트리거나, 사회의 기반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족 공동체란 서로를 관용하는 사람들의 집합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수용국은 3번 조항을 지킬 이유가 없고, 1번 조항의 조건을 재고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흔히 이민자들이 2번 조항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민자들이 동화되려는 노력은 별로 하지 않고, 상당수는 관용과 거리가 먼 편협한 세계관을 고수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민자들에게 완전한 평등을 제공하는 이상 완전한 동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